



7월 넷째 주 기사 스크랩

[주요 뉴스]

아주경제 [NNA] 6월 印尼 자동차 판매, 3개월 만에 1만대 넘어
(<https://www.ajunews.com/view/20200715215551434>)

아시아투데이 "해외진출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캄보디아·인니 사례서 배운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716010010336>)

 **연합뉴스** 국민은행, 내달 인도네시아 중형은행 인수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0112200002>)

 **뉴스웍스** 성 산업 "기업인 출국·입국 돕기위해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 신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262>)

[NNA] 6월 印尼 자동차 판매, 3개월 만에 1만대 넘어

타다 마사유키 기자/ [번역] 이경 기자입력 : 2020-07-15 21:57

[사진=토요타 인도네시아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자동차제조업협회에 의하면, 6월의 인도네시아 시장 신차판매대수(딜러 출하 대수, 확정치)는 1만 2623대였다. 3551대였던 5월 판매대수의 3.6배로 늘어나, 3개월 만에 1만대를 넘어섰다. 토요타, 다이하츠 등이 6월 초순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을 재개했다.

자동차제조업협회의 오키 부회장에 의하면, 1위 토요타는 전월의 695대에서 3705대로 증가했다. 5월 하순부터 생산을 재개한 스즈키는 2755대. 다이하츠는 5월 판매대수가 0대였으나, 6월은 331대를 판매했다.

6월의 소매판매대수는 전월 대비 75% 증가한 2만 9882대였다. 30개 브랜드 중 25개 브랜드가 전달보다 판매대수가 증가했다. 토요타는 1만 1196대로 3개월 만에 1만대 이상 판매를 기록했다.

“해외진출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캄보디아·인니 사례서 배운다”

기사승인 2020. 07. 16. 17:09

노사발전재단, 해외 인사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 개최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진출기업 사례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됐다.

노사발전재단은 16일 오후 해외 진출 및 진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HRM) 세미나’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노사발전재단은 매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선정해 현지진출 기업 인사노무관리(HRM)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캄보디아의 코로나19 지침, 유럽연합(EU)의 캄보디아 관세 특혜 철회 및 산업안전보건 주요 현황과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지침 및 대응 방안을 소개함으로써 해외 진출(예정) 우리 기업의 안정된 노사관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인 반기일 법무법인(유) 지평 외국변호사는 △캄보디아 노동조합법 개정 △EU의 캄보디아 관세 특혜 철회 이슈 △코로나19 관련 현지 정부 지침 및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재왕 안전보건공단 국제개발협력팀 팀장이 캄보디아 산업안전보건 주요 현황과 현지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추진 내용을 소개하고, 이명재 법무법인(유) 울촌 외국변호사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관련 현지정부 대응책과 인사노무 상의 주요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해당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과 인사노무 관리에 여러 변화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내달 인도네시아 중형은행 인수

김연숙 기자 송고시간 2020-07-20 15:38

8월까지 부코핀은행 지분 최대 67%까지 추가 인수
"KB 계열사 협업으로 인니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해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국민은행은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부코핀은행 지분을 최대 67%까지 추가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8월말까지 지분 추가 인수가 마무리되면 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의 최대주주가 된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이 은행 지분 22%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됐다.

은행권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인 해외 상장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은 외국자본의 은행업 진출 장벽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의 현지 은행 지분 보유 한도는 40%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 등 현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고 3분의 2 이상의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OJK의 협조로 추가 부실은행 인수 없이 경영권 승인 절차도 간소화했다"며 "투자가격 면에서도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은행 인수·합병 사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코핀 은행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412개의 지점과 835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의 영업 네트워크를 가진 중형은행이다. 전통적으로 연금대출·조합원대출, 중소기업(SME) 대출을 통해 고객 기반을 확보했다.

국민은행은 인수 후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노하우와 선진화된 디지털 역량 등을 접목해 부코핀 은행의 리테일 강점을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또 현지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KB손해보험·카드·캐피탈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코핀은행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지 고객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 산업 "기업인 출국·입국 돕기 위해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 신설"

허윤연 기자 승인 2020.07.21. 16:07

싱가포르, UAE, 인도네시아로 '신속통로' 확대... '팬데믹 Free Passport' 도입 추진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 코엑스 주피터룸에서 열린 '2020년 통상산업포럼'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 코엑스 주피터룸에서 열린 '2020년 통상산업포럼'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윤연 기자] 정부가 필수 기업인들의 입국 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현재 중국에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경제단체, 기업인, 통상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산업포럼을 열어 이 같은 'K-통상 전략'을 발표·논의했다.

K-통상전략은 코로나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등 급속한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활용해 연대와 협력의 통상질서를 선도해 나가고자 마련하게 됐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기존 시장개방 중심의 FTA를 개편해 개도국과의 지속가능한 무역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필수 인력·물류 이동의 원활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 차원에서 필수 기업인 입국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 적용국가를 확대하고 다자 차원에서도 필수 인력 이동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물품을 포함한 물류 이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국제 규범화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수 기업인의 해외출국 및 국내입국 관련 애로를 일괄지원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여파에 따른 디지털경제의 급속한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우리기업의 해외 디지털시장 진출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 등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아태지역 국가들과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 체결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국내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비대면 경제 관련 주요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높아지는 신보호무역 파고에 민간과 힘을 합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민관합동의 체계적 보호무역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반덤핑 등 전통적 수입규제뿐만 아니라 각국의 무역제한조치 전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보와 핵심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전세계적 무역·투자제한조치 확대 추세에 대응해 수출통제, 외투심사, 기술보호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K-통상전력을 살피려면 먼저 필수 기업인 국경간 이동을 늘린다. 필수 기업인 입국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현재 중국에서, 싱가포르, UAE,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한다.

무역협회 내에는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수 기업인들의 해외 출국과 국내 입국 관련 사항을 일괄 지원한다. 산업부, 무협, 상의, KOTRA 등 직원으로 구성하고 애로 접수, 건강상태확인서 및 격리면제서 발급지원, 전세기 운항 협조 등을 수행한다.

또 팬데믹 발생 시 ASEAN+3, APEC 등 다자차원에서 국가간 필수 기업인 이동, 물류·통관 원활화, 무역·투자제한조치 최소화 등을 보장하는 ‘팬데믹 Free Passport’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물류·의료·교육·생활 등 4대 서비스 분야 비대면 디지털 기술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 선점도 추진한다. 국제표준화를 위한 ‘비대면 경제표준화 협의체’를 가동하고 비대면 기술 검증 확산을 위한 실증·인증체계를 구축한다.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업종별 단체, 로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운영한다. 각국의 정책과 업종별·국가별 수출 동향 등 점검, 보조금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국내 제도 사전 검토, 민관 합동 현장 지원 활동 등을 추진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통상추진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통상 분석 및 대응 포털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국내외 대응 성공 및 실패 사례, 주요국 통상 판례, 기타 다양한 통상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통상협력을 적시에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통상협력촉진법을 제정해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원 마련 및 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을 최종 확정·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선적으로 베트남 특별입국(600여명), 중국 광둥성 전세기 운항·입국(7150여명),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 설치(8월초)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